

이 사실이나 文殊寺碑片 發見이 이곳 自然과 人文에 대한 새로운 着眼의契機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十月十日記)

註

- ① 普雨의 淸平寺重創과 그의 住錫에 대하여서는 虛應堂集과 懶庵雜著에 많은 記名과 詩文이 보인다.
- ② 楡岾寺本末寺誌에 淸平寺에 관한 文獻뿐 아니라 傳說이나 所屬庵子名과 그 所在地가 가장 자세히 다.
- ③ 愚潭의 山中日記에 「仍見眞梁公藏骨處。出見誌石。字刻未能盡釋面。初書公諱。骨在甕中。人人出見。悟欲出以示我。我止之。」云云이라 보이고 있으며 再埋葬된 사실이 楡岾寺本末誌에도 보인다.
- ④ 大東金石目과 大東金石書(一〇六一—一〇九葉) 東國輿地勝覽
- ⑤ 高麗史 卷九十五 列傳 卷八 李賁玄條 高麗史節要 睿宗 十二年丁酉 同仁宗 三年 乙巳條
- ⑥ 極梁殿의 遺影은 古蹟圖譜 卷十二(二七〇—二七三) 計十枚에서 볼 수 있으며 同架構에 대하여서는 杉山信三著 「麗末鮮初의 木造建築研究」(三二二頁—三三五頁)에 보인다.

## 有段石斧의 二例

李 殷 昌

一 一九六六年 十月二十五日 光州博物館에서 有段石斧 一個를 볼 수 있었다. 이에 對한 盧錫徑 館長의 말에 依하면 珍島에서 出土된 것이라 하는데 그 出土經緯와 遺跡狀況은 모르겠으나 珍貴한 一例이다. 이보다 앞서 筆者는 瑞山郡 海美面 前川里에서 有段石斧로 볼 수 있는 石斧 一個를 收拾할 수 있었다.

二

傳珍島出土有段石斧 ①: 靑石製로 總長 二八cm이며 大體로 圓筒形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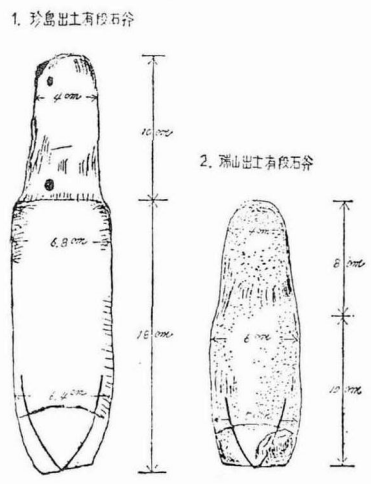
第九卷 第十號 通卷九十九號

層段이 顯著한데 下半部의 長은 一八cm이요, 直徑은 六·八cm이며 上半部의 長은 一〇cm이요, 直徑은 四cm로 上半部는 下半部의 切半의 크기에 該當된다. 斧身全體를 精磨를 加하였고 斧身의 約三分之一位에서 段을 形成하였으니 上半頭部는 斷面 圓形에 가까운 圓筒形을 이루고 下半頭部는 斷面 橢圓形에 가깝게 扁平하며 蛤雙을 이루었다. 雙部에는 若干의 缺落部分을 發見할 수 있으니 이는 使用에 依한 缺落이라 하겠다 石斧를 一見하여 特히 注目되는 바는 斧身의 約三分之一位線에서 段을 形成한 것이니 全體의 三分之一에 該當되는 上半頭部가 圓筒形을 이루었는데 이것이 段을 이루는 部分에서 連結하여 下半頭部가 全體의 三分之二에 該當되는 크기로 擴大되었다(光州博物館 所藏).

三

瑞山出土有段石斧 ②: 黑色 砂岩製로 總長 一八cm이며 前者와는 달리 斷面 橢圓形으로 扁平하며 그리고 膨張度가 表示되었다. 頭部幅은 四cm 雙部幅은 五cm 中間部는 最大 六cm 厚는 最大 四cm의 數値를 算하고 있는 바 雙部는 蛤雙으로 되었으며 頭部는 扁축하다. 石斧의 全身은 石質關係인지 「정」으로 다듬은 것 같이 細密한 凸凹이 보이고 雙부에 缺落이 있음은 亦是 使用時 打擊에 依한 缺失이라 하겠다. 石斧의 特異點이라 할가 또는 注目되는 바는 斧身·中間位에 層段을 形成하여 上半部는 縮約되어 上部로 漸次가늘어지고 下半部는 擴大되어 下部로 漸次 넓어지고 있는 데 이는 前者와 같이 有段石斧에 屬하는 것이라 하겠다(筆者 所藏)

有段石斧의 詳細圖



四

以上記述한 傳珍島出土有段石斧와 瑞山出土有段石斧는 金元龍教授에 依하여 紹介된 慶州地方出土有段石斧와 同一樣式系로서 特異한 類型이라 하겠다. 西시베리아 出土의 有角石斧④와 東南亞細亞地域에 分布하고 있는 有肩石斧⑤와 우리나라에서 出土되는 有溝石斧⑥가 모두 柄을 裝置하기에 便宜를 얻기 爲한 構造라고 생각 되는 바, 이 有段石斧도 亦是 木柄을 附着하기에 必要한 特異構造라 하겠으니 곧 先端이 구부러진 木柄을 雙부와 直角으로 대고 段을 利用하여 곧으로 단단하게 동여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現今까지 그 出土例가 慶州·珍島·瑞山等地이니 이는 곧 韓國 西海岸과 南海岸의 地帶에 有段石斧가 分布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나가서는 太平洋岸地域과 島嶼等地 ⑦의 分布에 連結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註

- ① 光州博物館案内書 「石斧」 ①條 參照
- ② 拙稿 「瑞山地方의 先史遺跡發見」 (考古美術 第三卷 第九號)
- ③ 金元龍 「慶州地方의 一石斧」 (考古美術 第二卷 第四號)
- ④ 世界史大系 一 先史時代 「西シベ리아—西と東の文化의 影響」條 參照
- ⑤ ① 世界史大系 一 先史時代 「東아시아—인도의 新石器と의 關係—」 「東아시아—安南·カンボディア·ラオスの 遺跡—」條 參照
- ② 水野清一·小林行雄 編 考古學辭典 「有肩石斧, 九九九面—一,〇〇〇面」條 參照
- ⑥ 世界美術全集 二 「先史時代의 遺蹟遺物—石器—」條 參照
- ⑦ ① 金元龍 上揭註③
- ② 水野·小林 編 考古學辭典 「有段石斧 一,〇〇〇一面」條 參照

### 金陵 廣德洞 磨崖菩薩立像

鄭 永 鎬

慶北 金陵郡 甘文面 廣德洞 三區 炭洞部落 ① 水利組合앞에 石造菩薩立像 一軀가 遺存한다.

이 立像에 關하여는 아무런 記錄이 없는데 一九六四年 六月初旬 한국 일보社 芮庸海 論說委員으로부터의 傳聞②에 依하여 筆者는 上記 菩薩像의 存在를 알게 되었다. 그 후 調査의 機會가 없어서 궁금하던 차 지난 八月下旬에 善山地區踏査를 마치고 上京하는 길에 이 곳을 찾아 菩薩立像을 調査하였으므로 여기에 簡單히 紹介한다.

現在 廣德貯水池 堤防밑 川邊 西南쪽 山麓에 遺存하는데 이곳 洞民인 崔源大(三十二歲)氏나 柳東俊(三十六歲)氏의 말에 依하면 오래前부터 ③이 立像은 이 곳에 있어서 部落民들은 勿論이요 近方 여러 洞民들까지도 여기에 모여들어 年中 數次에 佛供을 드린다고 한다. 그러나 이 자리가 石像의 原位置인지는 알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면 東쪽 山谷으로 約一km 되는 곳에 文殊寺址④가 있다고 하니 或時 그곳에서 移安한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기 때문이다. 如何든 現在의 여러가지 傳聞이나 이곳 周邊의 狀況을 綜合해 보면 相當히 오래前부터 이 곳에 遺存하고 있는 것 같다.

山麓에 石築(高二m 長十m)을 쌓아

